

2020년 11월 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익직불정책과 과장 정혜련(044-201-1771), 서기관 정미영(1772), 서기관 김동환(1776)/제공일: 11월 5일(총 6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, 11월 5일부터 지급

- 자격요건 검증된 112만 농가·농업인에게 총 2조 2,753억 원 지급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지급액: 총 2조 2,753억 원

- 소농직불금: 5,174억 원, 면적직불금: 1조 7,579억 원

◆ 지급건수 및 면적: 총 1,121천 건(1,128천ha)

- 소농직불금: 431천 호(143천ha), 면적직불금: 690천 명(985천ha)

◆ 11월 5일 각 시·도에 자금 교부, 해당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서 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

- 코로나19·재해 피해 등으로 어려운 농업·농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지급계획(12월)보다 1개월 이상 조기에 집행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공익직불법')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.

< 지급 개요 >

- (지급규모)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,121천 농가·농업인(1,128천ha)에게 총 2조 2,753억 원*이 지급될 예정이다.

* 농지의 형상·기능 유지, 농약·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반영

-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,174억 원(431천 호), 농업인(법인 포함)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,579억 원(690천 명)을 지급한다.

< '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>

	지급액 (억 원)	지급면적 (천ha)	지급인원 (천 호, 천 명)	비고
소농 직불금	5,174	143	431	농가 기준
면적 직불금	17,579	985	690	농업인 기준
계	22,753	1,128	1,121	

- (자격검증)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,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,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였다.

- 신청접수 정보 분석,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,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(32천ha)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,
- 소농직불금 요건*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하였다.

*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,500만 원 미만, 농지면적 합산 1.55ha 미만 등

- (준수사항)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여,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·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% 감액하였다.

〈 주요 특징 〉

-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*되었고,

* 제도 개편 전 쌀·밭·조건불리직불금('19년 1조 2,356억 원 지급) 대비 1조 397억 원 증가

- 특히 중소규모 농가·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·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.

- (경작규모별 비교) 0.1ha 이상 ~ 0.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·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,091억 원으로, 전체 지급액(22,753억 원) 중 22.4%를 차지한다.

- 이는 개편 전(2019년)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.6%(1,306억 원) 대비 11.8%p 증가한 수준이다.

<면적 구간별 지급총액 및 비중>

(억원, %)

	0.1ha 이상 ~0.5ha 이하	0.5ha 초과 ~2h 이하	2ha 초과~ 6ha이하	6ha 초과	계
2019년	1,306 (10.6)	4,642 (37.6)	3,994 (32.3)	2,414 (19.5)	12,356 (100)
2020년	5,091 (22.4)	8,043 (35.3)	6,161 (27.1)	3,458 (15.2)	22,753 (100)

- (논·밭 비교) 논농가(361천ha)에 8,016억 원, 밭농가(167천ha)에 3,784억 원, 논·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(600천ha)에 1조 953억 원이 지급된다.

-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*하면 6,436억 원으로, 전체 지급액 중 28.3%를 차지하며, 이는 개편 전(2019년)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.2%(1,996억 원) 대비 12.1%p 증가한 수준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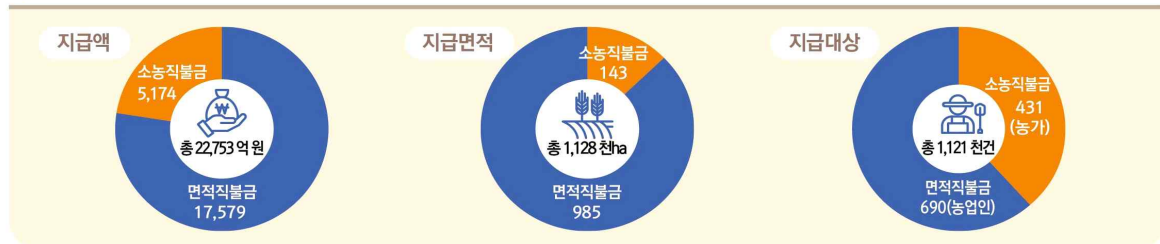
* 2019년은 논·밭 각각 지급된 반면 2020년은 공익직불금으로 지급, 전체 논·밭 비율을 적용해 추산

〈 향후 계획 〉

-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·군·구(읍·면·동)를 통해 11월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.
-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,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치므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,
- 농업인들이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.
-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, “공익직불법 국회 통과(‘19.12.27) 이후 시행일(‘20.5.1)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”고 언급하며,
- “코로나 19, 태풍·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·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,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, 이렇게 지급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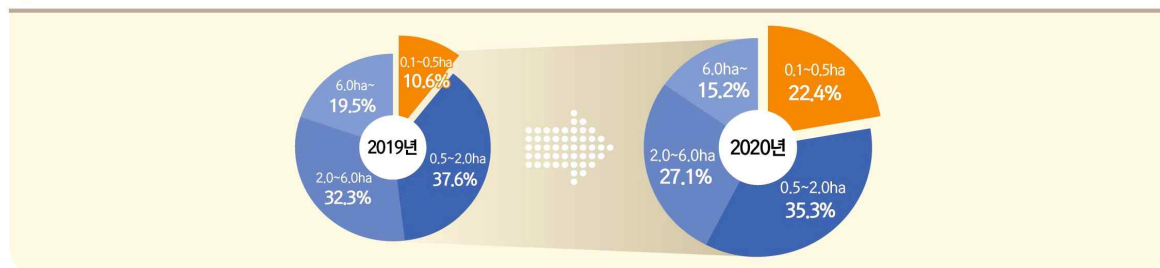
엄격한 자격검증을 통과한 112만 농가·농업인에게 총 2조 2,753억 원 지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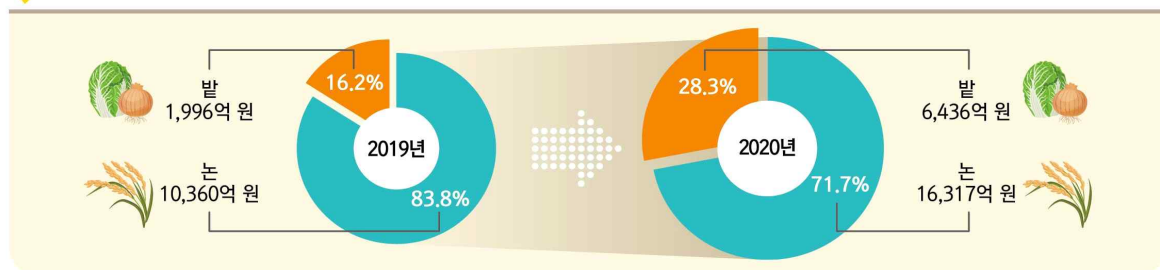
전년도에 비해 직불금 지급액 증가



소규모 농가·농업인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 상승



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 상승



당초 계획(12월)보다 조기에 지급

지자체 행정절차를 거쳐 **11월 5일부터**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
참고2

공익직불제 주요 추진 경과

- ☐ '19.12.27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국회 통과, '19.12.31일 공포('20.5.1일 시행)
- ☐ 농식품부에 '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*' 발족('20.1.2)
 - * 시행 준비를 위해 총괄팀, 준수의무팀, 교육홍보팀, 시스템개발팀, 현장준비팀으로 구성
 - * 17개 시도의 공익직불제 시행 전담 기구들과 연계체계 구축
- ☐ 농업인·소비자단체, 지자체, 학계 등을 포함한 『직불제 개편협의회 및 T/F』 협의를 거쳐 세부시행 방안 마련('20.2월중순)
- ☐ 세부 시행방안을 바탕으로 공익직불법 시행령·시행규칙 마련('20.4월말)
- ☐ 직불금 신청접수를 위한 사전 현장 준비('20.2~4월)
 - * 농업 경영체 정보 사전변경
 - * 읍면동(3,234개) 신청접수 인력 배치 계획 수립 및 담당자 교육 등
- 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,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·접수('20.5.1~6.30)
 - * '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'을 '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상황반'으로 전환, 신청접수 모니터링
- ☐ 신청접수 내용 검증*('20.7~10월말), 준수사항** 이행여부 현장 점검('20.7~9월말)
 - * 지급대상 농지·농업인 요건, 소농직불금 요건, 실경작 여부 등 검증
 - ** 농지 형상·기능 유지, 농약 안전 사용 기준·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
- ☐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교부('20.10월중순)
- ☐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('20.10월말)
- 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 및 교부('20.11.5)